

'무주반딧불축제' 경제성 분석 성공작

군, 평가발표회 가져... 경제적 효과 95억5천만원 · 방문객 설문조사 만족도 높아

성황리에 마친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프로그램과 경제성 분석 결과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공작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축제는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를 주제로 환경축제와 함께 빛이 어우러지면서 국내 명예문화관광축제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다.

무주군은 13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진용훈 위원장과 대의원, 축제지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 9일간(8월 27일부터 9월 4일) 행사장을 모니터링하며 지역주민과 외래객 302명(반딧불이 신비탐사는 13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등이 발표됐다.

설문조사는 행사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신비탐사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묻는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척도는 5점 척도로 1점 매우불만, 3점 보통, 5점 매우만족으로 배분했다고 군은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김해정 교수는 "지난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야간축제로 변화하면서 생태프로그램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낙화놀이 등 전통문화재현 및 지역문화 홍보,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불확실성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등의 추진전략에 개선했다"며 "축제



무주군은 13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진용훈 위원장과 대의원, 축제지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발표회'를 가졌다.

프로그램과 경제성 분석 결과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체적인 평가를 내렸다.

축제기간 무주를 찾은 방문객을 보면 외지인 88%, 군민 12%로 외래 방문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주군 방문목적이 '축제 참여'라고 응답한 경우는 89%, 가족 단위 방문객은 약 79%로 집계됐다.

특히 무주반딧불축체에 참여했던 경험을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57%로 무주반딧불축체에 반복 참여율이 높게 집계되는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

행사 만족도(5점 만점) 조사에서는 내년에도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방문을 추천하겠다(4.38), 축제 행사장 조성이 예쁘다(4.37), 행사장 야간 프

로그램이 재미있었다(4.34), 축제를 통해 무주의 지역문화를 알게 되었다(4.28), 순이었으며, 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약 95억5천만 원, 축제 방문객수는 19만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진용훈 위원장은 "올해에는 낮보다는 야간 시간을 활용한 축제로 변화의 방향을 잡았다"며 "앞으로도 감동을 자아내는 환경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3년 만에 개최된 만큼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적지 않았으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축제를 안전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며 "의견 수렴을 토대로 더 나은 축제를 보여드리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친환경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장수군, 지속 노력으로 비단잉어 · 거위 · 수생식물 등 서식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에 위치한 장수군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로 준공 18년째인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장계면 일원에서 발생된 3,200㎡의 생활하수를 한곳으로 모아 정화 처리하는 시설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 기초시설이지만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됐다.

그러나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 생겼다.

고도화된 하수처리공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비단잉어, 거위, 수생식물의 좋은 서식지이자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으로 변모했다.

하수처리 방류수를 이용한 작은 연못에는 물angk나물, 미나리를 비롯한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잉어와 거위들이 처리장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



어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 이미지에 기여하고 있다.

박창을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요소는 혐오 시설로 인식되던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주민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조사료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가져

최훈식 장수군수가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조사료 경영체 임원진들과 '조사료 활성화 방안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읍·면별 조사료 경영체 임원진들과 축산과장이 참여해, 최근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료값으로 인해 조사료 자급기반 구축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마련에 뜻을 같이했다.

임원진은 조사료 생산·수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작업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조사료 활성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조사료 산업의 발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김관영 지사 만나 지원 요청

도청 방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 현안사업 건의

황인홍 무주군수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발품을 팔고 있다.

황 군수는 지난 11일 전북도청을 방문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 무주군 주요 현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황 군수는 김관영 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억원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무주군 공설운동장이 노후하고 체육시설 기준에 미달해 각종 대회 유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반딧



불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면 각종 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반딧불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변경) 반영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2023년도 무

주 지방 정원 조성 사업, 국립 태권도 유치 조성 기록화 사업 등 총5건에 대한 10억 원의 도비 지원도 요청했다.

황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어디든 직접 뛰어가 문을 두드리겠다"면서 "무주군 주요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현 정부의 전라북도 7대 공약사업중의 하나"라며 "또한 민선8기 전라북도 체육 관련 공약이자 역점 사업인 만큼 무주군과 함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12대 이륜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 시행

진안군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2021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12대이며,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진안군에는 이륜자동차 지정 정비사업소가 없어 인근 전주에서 검사를 해야 했다.

검사 일정은 이달 18일 성수·마령면을 시작으로, 19일 진안읍·정천면, 20일 동향·안천면 등 각 읍·면사무소에서 검사가 진행되며 21일은 해당일에 수검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예비일로 진행된다.

정기검사 대상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

무주군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성공적 모금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무주군청 전 직원 대상이며, 공모분야는 무주의 매력을 뽐낼 차별화된 답례품과 고향사랑기부금 재원을 활용할 기금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다.

군은 무주의 매력과 특색을 담은 답례품 개발을 위해 접수조사를 실시, 총 124건의 답례품을 발굴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무주를 더욱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답례품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부금 활용 기금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무주군에 기부하면 기부금이 의미 있는 사업에 쓰이게 됨을 알려 무주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디어는 창의성, 효과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달내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한우량 사과량 축제 추진상황 최종보고회 가져

장수군이 '제16회 장수 한우량 사과량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축제 프로그램별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종훈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1차 보고회에서 논의했던 프로그램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종 보고회인 만큼, 프로그램들을 확정하고 일부 개선하는 내용들이 주로 다루졌다.

이종훈 부군수는 프로그램과 시설 전반의 큰 틀이 확정된 만큼 축제 홍보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제16회 장수 한우량 사과량 축제'는 대표 프로그램 한우마당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크레이지 로데오', '사과골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축제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